

사제(師弟)의 성(城)이 눈부시게 빛나는 창립기념일

2022년 11월 18일

이케다 선생님이 전 세계 동지에게 와카(和歌)



第3代会長
池田大作先生



第2代会長
戸田城聖先生



初代会長
牧口常三郎先生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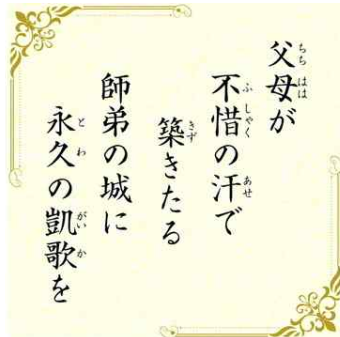
이케다 다이사쿠(池田大作) 선생님은 오늘을 기념해 전 세계 동지에게 세수(首)의 와카(和歌)를 읊어 선사했다.

1930년 11월 18일, 초대 회장 마키구치 쓰네사부로(牧口常三郎) 선생님은 제2대 회장 · 도다 조세이(戸田城聖) 선생님과 『창가교육학(創價教育學)체계』 제1권을 발간. 이날이 학회 창립기념일이 되었다.

1944년의 같은 날, 군부권력(軍部權力)과의 옥중투쟁(獄中鬪爭)을 관철한 마키구치(牧口) 선생님은 순교(殉教). 함께 옥에 들어간 도다(戸田) 선생님은 살아 출옥해, 전후(戰後)의 황야(荒野)에서 홀로, 광선유포(廣宣流布)에 일어섰다. 그 유지(遺志)를 이은 이케다(池田) 선생님의 불석신명(不惜身命)의 대투쟁으로 세계 192개국 · 지역으로 넓혀진 창가사제(創價師弟)의 대성(大城)이 구축된 것이다.

내년 2023년 11월 18일은 ‘광선유포대서당(廣宣流布大誓黨)’ 완공 10주년의 가절(佳節). 삼대회장(三代會長)에게 맥박(脈搏)치는 광포대원(廣布大願)의 ‘창립의 혼’을 가슴에 새기고 새로운 민중개가(民衆凱歌)를 향한 대전진(大前進)을 개시하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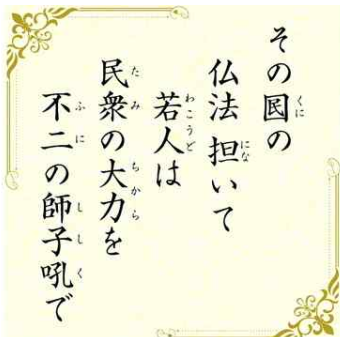
[이케다 선생님의 와카(和歌)]



아버지 어머니가
불석(不惜)의 땀으로
구축한(쌓아 올린)
사제(師弟)의 성(成)에
영구(永久)히 개가(凱歌)를



묘법(妙法)의
평등대혜(平等大慧)의
광채(光彩)여
시라유리(흰백합) 화양(華陽)의
스크럼 늠름하게



저 국(國)의(국민을 주인으로 하는, 민
중을 근본으로 하는)
불법(佛法)을 짊어진
젊은이는
민중의 대력(大力)을
불이(不二)의 사자후(師子吼)로